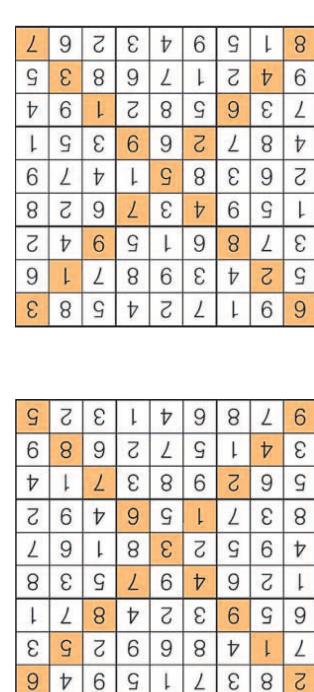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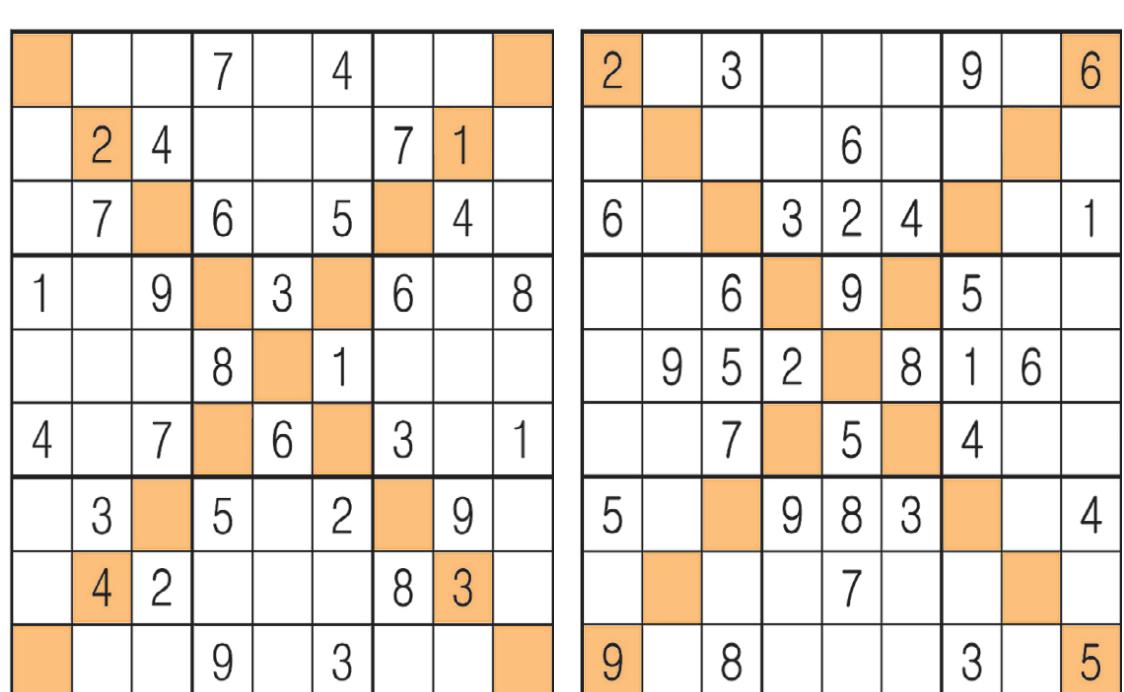


\* '클로저 이상용'은 'sportsdonga.com'에서 첫 회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강주현의 퍼즐월드** (큐미디어 게임) play스토어-앱-인기무료-검색창에서 경품남말·난수표·숨은그림꽃점·스타와사다리타기·야구스도쿠·오늘의운세(솔방·그림영어퍼즐·앵무새)을 쳐보세요. 게임 즐기고 경품 받는 재미가 끝내줍니다. www.마직스도쿠.kr 02-493-5956

단 한번 무료가입!  
경품퀴즈 날마다 업데이트!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 ■ 스도쿠정답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0월 26일(월요일) 음력: 9월 14일

|                    |   |                   |  |
|--------------------|---|-------------------|--|
| <br>쥐<br>행운색: 흰색   | <p>오늘의 마음: 폐청, 힘찬 하루. 운세: 기회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특히 그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게 있으니 서서히 자기 페이스대로 나아가라. 오늘은 장성과 망신 관계는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르다. 서로 비슷하여 실수한다. 정신이 훈미하여 착각하는 것이고 상황이 실수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속은 있는 날이다. 실수하여 속내를 보였으니 오히려 일은 신속히 성사될 수 있는 것. 길방: 서</p>  | <br>소<br>행운색: 적색  | <p>오늘의 마음: 비버처럼, 힘들다. 운세: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람이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오늘은 환경에 들뜨기 쉬운 날이라 자칫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환경에 휩쓸려 무리하면 회군이 될 수 있다. 투자행위 등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침착함을 잊지 않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일을 처리하면 주변의 시선을 모을 것. 길방: 남</p>                     |
| <br>토끼<br>행운색: 적색  | <p>오늘의 마음: 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오늘은 지설일이다.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움직여야 무언가 이루어진다. 기다리면 일이 어려워진다.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일가격을 이루기 위한 출발일이다. 사업적인 면에서 보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길방: 북</p>        | <br>뱀<br>행운색: 청색  | <p>오늘의 마음: 해·번개, 갈등. 운세: 성정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오늘은 역마일이다. 지설과 역마의 만남이다. 움직이는 날이다.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면서 번다. 영업적인 면에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는 날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치밀한 계획 아래 일을 추진하라. 길방: 동</p> |
| <br>말<br>행운색: 청색   | <p>오늘의 마음: 아개, 오리무중. 운세: 이 보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광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다. 남의 뒤를 쫓아나가면서는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오늘은 망신날이에 월진술이다. 망신일에는 실수를 자주한다. 이로 인해 내외적으로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다. 망신술은 운이 잡깐 좋았다는 운기므로 오늘은 매사에 이득이 발생하면 바로 손을 떼어야 한다. 망신일에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길방: 서</p>              | <br>양<br>행운색: 적색  | <p>오늘의 마음: 폐청, 상쾌. 운세: 소가 등을 비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염두에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오늘은 대지날이다. 밟은 대지날을 맞이하면 도전적이며 남에게 지지 싫어하는 기운 또는 쿠데타의 기질을 갖게 된다. 반면에 자신이 악하면 타인으로 인해 그러한 기운에 당하기도 한다. 부동산의 압류, 강제제각 등을 당할 수도 있으니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길방: 동</p>            |
| <br>원숭이<br>행운색: 경정 | <p>오늘의 마음: 진눈깨비, 혼란. 운세: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득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원숭이가 데지를 만나는 날이다. 망신술이다. 간언으로 사람들을 협혹하지만 자칫 망언이나 희롱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일만 커지게 된다. 가기호호 방문하여 영업활동을 하지만 먹히지 않는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실속이 없는 날이다. 기다려라. 앞서거나 서두르지 말라. 길방: 북</p>         | <br>닭<br>행운색: 노랑  | <p>오늘의 마음: 여우비, 겨우 만족. 운세: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영뚱한 오해를 살수도 있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유크분출, 잠재력 발휘의 날이고, 건강과 금전에 대한 복동이 이루어진다. 계획과 판단력이 뛰어나 주변의 시선을 모으고 결과에 대한 과분한 응답으로 몸과 바를 모른다. 반대로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왕한 기운을 억제하지 못하는 날. 길방: 중앙</p>      |
| <br>개<br>행운색: 흰색   | <p>오늘의 마음: 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이 일 저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물물이며 이사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늘은 겁살일이다. 성급한 생각으로 부동산을 속아서 비싼 값에 구입하는 경우, 보증을 잘못해서 재산을 날리는 경우 등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다. 서류상의 실수로 장래 압류도 들어올 수 있는 날이나 조심하라. 혼자서 일처리를 하지 말고, 노력 없이 대기를 바라지 말라. 길방: 남</p> | <br>돼지<br>행운색: 흰색 | <p>오늘의 마음: 파도, 좌충우돌. 운세: 승진 운이 있으니 맙은바 임무에 충실히 되 경거망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лер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오늘은 대지날이다. 데지가 데지를 만났으니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는 형상이다. 또 오늘은 비견의 날이다. 비견은 재를 극한다. 재는 저요 아버지요 돈이다. 오늘은 부부간의 분쟁, 아버지와의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낭비할 수 있는 날이다. 자체하라. 길방: 서</p>     |
| <br>재운코너           | <p>금일의 로또 구입처 행운방향(주거지 기준): 동, 북, 동북, 서북<br/>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 4, 6, 9, (3, 7)<br/>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떠: 쥐, 용, 원숭이<br/>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떠: 소, 뱀, 닭</p>  |                   |  |

도원역리학회 도원학당 원장 ※영어상담 가능(02-812-1201~2)

### 유머

#### 왠지 불안불안...



했다.

"침이나 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별금 15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5달러짜리 빨간 칩 세 개를 꺼냈다. 그리고 칩을 판사에게 건네며 말했다.

"별금 15달러, 여기에 있어요."

#### 똑같은 이유

'우리 어머니'란 주제의 글짓기 과제물을 검토하던 선생님이 한 학생의 글을 훑어보다가 그 학생을 불러 물었다.

"네가 쓴 이 글은 2년 전 니 언니가 제출한 글하고 똑같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자 학생은 해맑은 얼굴로 당당하게 대답했다.

"참, 선생님도. 그야 당연하죠. 언니 엄마와 제 엄마 똑같잖아요!"